

‘대포병 탐지레이다-II’ 배치로 적 장사정포 어렵없다!

K9 자주포와 감시·타격 패키지 수출 시너지 효과



육군 전 군단 및 서북도서에 대포병 탐지레이다-II를 배치함으로써 대북 억제 감시능력이 월등히 향상됐다.

방위사업청은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 도발에 대비해 효율적인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대포병 탐지레이다-II를 육군 전 군단 및 서북도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.

대포병 탐지레이다-II는 육군 군단급 작전지역 및 서북도서 전방의 적 포병 위치를 신속·정확하게 탐지해 탐지정보를 작전통제소 및 대화력전 전담부대로 전파하는 핵심 장비다.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2018년 최초 전력화를 시작해 올해 3월 29일을 기점으로 전력화를 완료했다.

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 도발에 대비해 효율적인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대포병 탐지레이다-II가 육군 전 군단 및 서북도서에 배치됐다. 대포병 탐지레이다-II는 적군으로부터 탐지 및 전자 공격을 어렵게 해 전자전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, 안테나를 모듈형 반도체 송·수신기로 설계해 일부 송·수신기가 고장 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.

대포병 탐지레이다-II는 능동위상배열(AESA)*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대포병 탐지레이다다. 적군으로부터 탐지 및 전자 공격을 어렵게 해 전자전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, 안테나를 모듈형 반도체 송·수신기로 설계해 일부 송·수신기가 고장 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.

이명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은 “이번 전력화는 적 포탄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우리 군 포병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 평가하고, “향후 K9 자주포와 패키지(감시-타격)로 수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K-방산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방위사업청은 우수한 성능을 가진 국산장비의 향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방산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중이며, 해외에서 장비를 시연하는 등 K-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.

* 능동위상배열레이다(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) : 레이더 안테나에 배열된 레이더 모듈들이 개별적인 반도체 증폭 및 위상 변위기를 갖추고 있어 전파의 송수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상배열레이다